



교회에서는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를 뜻하는 칭호를 부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 (431년)이다.

지역마다 서로 다른 날짜에 기념해 오던 이 축일은 에페소 공의회 1500주년인 1931년부터 보편교회의 축일이 되었고, 1970년부터 모든 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에 지내고 있다.



송구영신(Auld Lang Syne)

1. 시작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 하느님, 사랑으로 함께하심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마음 모아 당신께 드리니 이 한 해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소서.
2. 백삼위 성당 교우들과 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미사 성제 거룩하여라.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향해 열린 교회 선포하게 하소서.
3. 진리 위해 한마음을 바치신 예수님, 당신 향해 가는 우리 보살펴 주소서. 참된 생명 우리 주님 당신을 따르리.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대영광송

제1독서 민수기 6,22 - 27

화답송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2독서 갈라티아서 4,4 - 7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복 음 루카 2,16 - 21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신앙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신비여**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영성체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www.103skcc.org



2022년 신년 메시지

**“그렇지만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에즈 10,2)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한 해,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한 해의 달력이 마감되고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은, 그저 세월의 무상한 쳇바퀴가 도는 게 아니라 분명 하느님의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최근 2년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조금씩 지치고 힘들어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새해가 밝아옴은 지치고 갈라진 마음에 생기를 주는 한 줄기 생명수같이, 새 분위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밝아온 새해는 지난 2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개개인의 책임 있는 행동과 개인들의 연대가 중요함을 우리 모두 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노드 교회를 살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요청하시는 시노드는 단지 몇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회의’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원과 소명에 대한 성찰과 참여와 경청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불러주신 초대입니다. 새해에는 ‘시노드 회의’가 아니라 ‘시노드 교회를 살’으로써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안에서 변화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변화시켜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